

신간서평: 中村 哲著, 정안기역 『근대 동아시아 역사상의 재구성』 (혜안, 2005년, 237면)

鄭安基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연구조교수

이 책의 저자 나카무라 사토루(中村 哲)는 1980년대 이후 한국학계에서 이른바 ‘中進資本主義論’의 주창자로 널리 알려진 경제사가이자 이론가이다. 저자는 원래 막부말기 일본경제사를 전공한 저명한 역사가이며, 최초의 저서 『明治維新の經濟構造』(未來社 1968년)는 메이지 유신을 전후한 일본경제의 높은 생산력 발전을 치밀한 실증과 획기적인 논리로 재구성함으로써 출판과 동시에 일본경제사 연구에서 고전의 반열에 올랐고, 현재에도 메이지기 경제사 연구에서 그 인용이 불가결한 역작이다. 그 후에도 저자는 일관되게 마르크스 경제사학의 새로운 이론적 발전을 추구했으며, 1977년 『奴隸制·農奴制の理論』(東京大學 出版會, 1977년)은 종래 일반경제사의 통상적인 이해였던 ‘가부장적 노예제→봉건적 농노제→자본주의 코스’와 병행해서 전후 식민지 공업화를 의식한 ‘국가적 노예제→국가적 노예제→식민지종속국의 코스’를 제시함으로써 경제사 연구의 새로운 지평을 개척하였다. 같은 책은 저명한 한국경제사 전공자이신 안병직교수에 의해 한국어로 출판되었고, 한국학계에서도 그 논의 수용여부와 무관하게 널리 읽혀진 걸작이기도 하다.

더구나, 저자는 1975년 이래 주로 조선경제사를 비롯한 식민지 연구를 본격화하였고, 그 과정에서 한국의 연구자들과 활발한 공동연구를 주도하여, 『근대조선의 경제구조』(비봉출판사 1989년)를 비롯한 학계가 공유하는 다수의 연구 성과를 올릴 수 있었다. 특히, 1993년도 저작 『近代世界史像の再構成-東アジアの視點から』(青木書店, 1991년)¹⁾은 그 동안 비약적인 경제발전으로 세계사적인 주목을 받아왔던 동아시아 NICES의 역사적인 궤적을 독창적인 논리로 재구성함으로써 종래 유럽중심사관에 대신하는 구조적인 세계사적 방법론을 제시하였다. 이 책은 바로 그 책의 속편으로, 저자가 1992년 이후 1998년에 걸쳐 발표한 논문에 새로 한 편을 추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최근 동아시아의 경제는 주지와 같이, 세계무역량의 50%를 넘어서는 아시아역내 무역권을 형성하며, 비약적인 경제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더구나, 1997년 아시아 경제위기를 비롯한 다양한 우여곡절, 그리고 발전단계의 격차와 지역격차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세계의 다른 지역과 비교해 보면, 현대의 동아시아를 둘러싼 경제적 다이내믹스는 세계은행의 지적과 같이 더 이상 기적(Miracle)일 수만은 없고, 동시대의 사회과학도들에게 부여된 커다란 연구 과제이기도 하다. 즉, 동아시아 경제는 언제 어떻게 발전할 수 있었으며, 금후 어떻게 될 것인가? 이 책은 이 같은 질문에 답변하고자 지적 자극에 충만한 동아시아 자본주의론을 제시하고 있다. 본서의 구성은 다음과 같이 근래에 보기 드물게 극히 광범위한 문제들을 다루고 있다.

논문접수일 : 2005년 9월 26일, 게재확정일 : 2005년 9월 30일

1) 한국이 번역본으로는 안병직역, 『世界資本主義와 移行의 理論-東아시아를 중심으로-』 비봉출판사, 1991년.

- 제1장 동아시아 자본주의사의 탐구 -최근의 연구에 의거해서-
- 제2장 戰間期 동아시아와 일본자본주의
- 제3장 일본의 자본주의화와 중소기업 -일본자본주의 형성의 일 특질-
- 제4장 동아시아 자본주의 형성의 역사적 조건들
- 제5장 20세기 자본주의로부터 21세기 자본주의로

먼저, 제1장에서는 최근 일본학계에서 이론과 실증 양면에서 비약적인 연구축적을 거듭하고 있는 동아시아 경제사 연구의 성과를 독자적인 동아시아자본주의론의 시점에서 정리하고 있다. 실제로 장기간에 걸쳐 동아시아 역사상의 구축과 이론화를 시도해온 저자는 특유의 '소농사회론'에 입각해서 일본을 포함한 동북아시아는 서유럽과 함께 소농사회가 고도로 발전한 사회였으며, 동북아시아에서는 농촌공업과 겸업화, 복합경영의 형태로 발전함으로써 전업화와 농공분리의 방향을 취한 서유럽과는 유형적인 커다란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또한, 그로 인해 근대 일본은 이식형 대공업과 재래형 중소영세공업이라고 하는 복선형 공업화를 취했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동아시아경제권론'에 대해 동아시아에서는 銅貨를 사용하는 국지적 시장권이 은화결계의 원격지 시장으로부터 격리되었던 반면, 서유럽은 은화에 의해 통일된 국지적 시장에서 신용거래가 발달했다는 쿠로다 아키노비(黒田明伸)의 이론을 지지하는 한편, 스기하라 카오루(杉原 薫)의 아시아간 무역론에 대해서는 그 논지를 높이 평가하면서도 전간기 일본 제국주의의 대륙 팽창에 의한 동아시아 경제권의 급격한 변모에 대한 이해가 불충분함을 비판하고 있다.

제2장에서는 戰間期 일본의 '경이적인 공업화'가 동아시아 경제를 지배하는 측면만과 함께 식민지 사회의 근대화를 촉진시켰음에 주목하고 있다. 식민지 조선의 공업화에 대해서는 일본 제국주의 식민지 지배에 의해서 조선의 사회경제구조가 자본주의화하였으며, 중국도 자본주의화가 진전하였고, 이를 경제적 조건으로 해서 민족혁명정권으로써 국민정부가 성립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이는 급속한 자본주의 발전을 거듭하고 있는 현대 동아시아 발전의 역사적 전제 조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제3장, 일본에서 중소기업이 구미제국 혹은 NIEs 제국에 비해서 뚜렷하게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정부의 직접적 보호도 없이 이식산업으로부터 기술을 모방·간소화해서 재래산업의 기술혁신과 풍부한 저임금노동력을 이용할 수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중소기업의 발달은 19세기로부터 20세기에 걸쳐서 인근 아시아 시장을 제품시장으로 편입시켜 수출지역의 재래산업을 후퇴시키기도 했다는 것이다. 그러한 일본의 이식형 중소 영세공업은 일정 지역에 집중하였고, 그 과정에서 상업자본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는 것이다.

제4장 최근 '동아시아 자본주의는 19세기형 구미자본주의와는 상이한 자본주의의 새로운 유형으로써 그 이론화의 요청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즉, 20세기 자본주의체제 하에서 주변부로부터 중심부로 진입하고 있는 동아시아 경제의 내부적인 제 조건에 관한 이론화를 위한 중간정리와 함께 그 전망을 시도하고 있다. 농업의 소경영적 발전과 근대적 토지개혁의 실시, 막대한 도시 비공식 부문의 형성과 축소, 중소 영세공업의 중요성, 정부의 외국에 대한 통제능력의 유무, 식민지 내재적 조건을 중시하는 연구의 필요성 등 중요한 논점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일본자본주의가 동아시아 자본주의 일부로써 동아시아 제국과 공통되는 특질이 일찍부터 준비되었다고 지적하고 있다.

제5장,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제국주의를 레닌(제국주의론)이 주장했던 사회주의로의 이행단계가 아니라 20세기 자본주의로 이행하는 과도기로 파악하는 한편, 20세기 자본주의를 규정했던 사회주의체제의 해체와 복지국가체제가 한계에 직면하여, 1990년경부터 21세기 자본주의로의 이행기로 진입했다는 것이다. 또

한, 21세기 이른 단계부터 자본주의가 노동력의 과반을 포섭하는 ‘본격적 자본주의화’가 세계 인구의 4분의 3을 차지할 것이라 예측하고 있다. 한편, 그러한 생산력적 발전이 자연조건을 파괴하여 인류가 멸망할 가능성과 자본주의의 내부적 변질을 통해 다음 사회로 이행할 가능성 그 양자를 논하고 있다. 실제로 노동의 인간화, 제조업의 지적 고도화, 비영리 조직의 확대 등이 성숙한 자본주의의 내부적 변화의 징후로 파악하고 있다.

이상과 같이, 본서는 새로운 이론 틀에 입각해서 종래 정체론적인 근대 동아시아의 역사상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와 과감한 이론화를 시도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경제사·아시아경제사를 전공하는 평자의 입장에서 동아시아의 지역설정과 관련해서 다음과 같은 지적이 불가피하다. 종래 동아시아의 지역설정과 관련해서는 이 책에서도 소개하고 있지만, 다양한 논의가 있어 왔다. 그러나 저자는 이 책에서 현재 동아시아 제 지역의 경제적 관련과 소농사회의 성립여부에 따라 동아시아 지역을 동북아시아(한국, 일본, 중국, 북한, 대만)와 동남아시아를 포함하는 지역으로 파악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비약적인 연구축적을 거듭하고 있는 아시아교역권론 혹은 아시아네트워크론 등은 동아시아 경제권 형성에서 서구와 아시아의 점점 혹은 아시아역내 무역망 형성의 원점으로써 인도 역할을 크게 중시해 왔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또한, 저자의 이론적 토대가 되는 소농사회의 존재 여부와 관련해서도 최근 야나기사와 하루카(柳澤 悠)의 연구²⁾에 의하면, 남인도 지역에서의 소농화는 19세기 후반부터 본격화하였고, 19세기 후반부터 20세기 전반에 걸쳐 고용노동력은 농업노동력의 약 30%에 상당했음을 밝히고 있다. 나아가, 최근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인도의 비약적인 경제발전도 결국은 아시아 태평양 광역경제권과의 긴밀한 국제분업을 전제로 하고 있다. 따라서 저자의 주장과는 달리 동아시아 지역경제와 현대 인도경제의 현실 그리고 그 역사적 궤적을 고려하면, 인도를 동아시아 경제권의 적극적인 일부로 파악하는 지역설정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이상과 같이, 1993년 『近代世界史像의 再構成』이 일본과 한국의 경험을 기초로 해서 구상한 ‘中進資本主義’ 개념으로 ‘저개발국’→‘중진자본주의’→‘선진자본주의’라는 발전모델을 제창한 것이라면, 이 책은 최근 비약적인 연구축적을 거듭하고 있는 근대 아시아 경제사 연구의 새로운 패러다임 정리에 기초해서 일본을 포함한 ‘동아시아자본주의’가 ‘서구자본주의’와는 구별되는 상이한 유형의 자본주의 발전이었음을 주장하고 있다. 즉, 동아시아 자본주의 발전의 地域性을 분명히 하고 있다. 나아가, 이러한 급속한 동아시아 경제발전이 정보화와 글로벌화를 키워드로 하는 현대 세계자본주의를 변혁(20세기로부터 21세기 자본주의로)시키는 역사적인 지렛대로 작용하고 있다는 자극적인 논지를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종래 뿌리 깊은 유럽중심사관을 극복하고, ‘구조적인 세계사’ 혹은 구태의연한 일국사 차원을 넘어, 글로벌 히스토리를 구상하는 연구자 제현들에게는 필독의 문헌임을 감히 밝혀둔다. 또한, 이 책은 이미 근대 아시아 경제사의 고전으로 그 길라잡이 역할도 충분히 해낼 것으로 믿는다. 마지막으로 필자가 본서의 번역자임에도 불구하고, 서평 형식의 소개가 불가피한 저간의 사정에 대해 독자 제현의 양해를 바란다.

2) 柳澤 悠, 「南インドにおける小農化傾向と農村小工業」 『アジアから考える(6)長期社會變動』 東京大學出版會, 1994년.